

01 교회소식

창간 25주년 맞아

만민뉴스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사랑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전하며 무수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02 생명의 말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선하고 겸비한 마음을 이루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감정이 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한 말을 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03 국내외에서 온 편지

산소 같은 신문, 만민뉴스

다국어 만민뉴스를 통해 은혜받은 국내외 교역자와 성도들이 보내 온 감사편지를 일부 소개한다.

04 간증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강건해져요”

구원받고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해 작년 한해 우리 교회 성도 중 만민뉴스를 가장 많이 전했다는 정필경 집사와 석화성간증을 치료받은 황찬미 자매의 간증.

# 만민뉴스

제533호 2012년 5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전 세계 만민을 향한 주님의 사랑

세계적 선교지로 자리매김한 ‘만민뉴스’ 창간 25주년을 맞아



25개 언어로 발간 중인 만민뉴스는 전 세계 곳곳에 전해져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매호가 발간될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신문 위에 손을 얹고 “읽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감동감화충만함을 입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준다.

말씀, 간증, 선교, 나눔, 신앙가이드 등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받는 신앙과트너 ‘만민뉴스’가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17일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 교회 내 다양한 소식을 담아 격월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다가 1991년 10월, 격주 발간을 시작했다.

교회 소식지를 뛰어넘어 해외 성도들을 위한 선교지로 성장하면서 2009년 10월에는 ‘만민뉴스’로 제호를 변경했다. 그때부터 매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으로 동시 발간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해외 자협력 교회의 소식을 한국어와 영어, 중

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어 등 25개 언어로 제작해 전 세계 성령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전달하며 세계적 선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해외 각 지교회 및 협력교회에도 발송돼 선교사들의 설교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도 신문을 통해 믿음을 갖고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많은 성도의 간증이 줄을 잇는다. 말씀과 간증 등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해외 지교회에서도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태국 방콕의 농녹 목사는 “만민뉴스를 읽고 지금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에 실린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을 느꼈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권능의 역사와 성령 말씀을 통해 창조주가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만민뉴스는 세계 교구화에 발맞춰 전 세계 구석구석의 은혜로운 뉴스와 간증을 실시간 수신해 더욱 신속히 보도하고자 아동에서 장년, 국내 및 해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뉴스 네트워크를 확립해가고 있다.

또한 독자들의 사랑과 호응 속

에 다국어 신규 발간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어, 에스토니아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판이 곧 발간된다.

한편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어판 만민뉴스는

인터넷(news.manmin.org)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발간되는 다국어 만민뉴스를 PDF신문과 전자신문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와 한국어 만민뉴스 모바일 웹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 (마태복음 15:25~28)

#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속의 후손 수로보니게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 천대하며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구나 남자인 예수님 앞에 나와 여인의 몸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처럼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예수님께서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지요. 그제야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에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다시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며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개 취급하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요. 이는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에 올라오는 분을 식이며 계산하고 짜내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 말씀에 일말의 서운함이 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중심이 선하고 겸비했기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었지요.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던지 “여자가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인의 딸이 그 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춤으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이 아닌데도 순간에 간교한 지혜를 짜내어 겸손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 본색이 드러나고 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선한 중심에 겸비함이 임해 있었기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다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감정이 나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감동을 줄 수 있지요. 만일 상대가 자존심 상할 말을 해도 선한 말로 감동을 주면 오히려 미안해 하며 잘못을 깨우치게 됩니다.

## 2. 선으로 감동적인 고백을 한 선진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고백합니다(막 1:7).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송해 감히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요.

또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요 3:30). 그는 자신이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는 중심이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지요(마 11:11).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쌓아 온 것들은 철저히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상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빌 3:8-9).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전 15:8)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딤후 1:15)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컸던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로라”(롬 9:3) 했지요. 이러한 중심이었기에 신약 시대 가장 큰 권능을 베푸는 사도가 돼 이방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 3. 겸비함으로 지적받는 선한 마음과 따르는 축복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적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서운함이 틈타 총만함을 잃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변명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고 제자리걸음하기 마련이지요. 세 번째 유형은 지적받은 것을 감사하게 받으며 부족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 힘씁니다. 이런 사람은 신속히 진리로 변화돼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지적을 통해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적받기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지적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싫은 소리는 하기 싫고 다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 하지요. 따라서 지적을 받을 때 서운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더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신속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춰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함으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마음 씀을 가지고 한 마디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말씀을 통해 발견된 비진리들을 회개하고 신속히 빼낼 뿐 아니라 진리로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만일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 퇴학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부모는 학교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 아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니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하며 모욕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겸허히 모든 수모를 받아들이며 끝까지 선처를 바랄 사람도 있지만,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해?’ 하며 자존심 상할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건만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것을 ‘자존심 상한다,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지요.

### 1. 개 취급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 머무셨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지요.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가나안 족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 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반도), 5616(반도편 반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주일 자녀예배  
금요일예배  
수요일예배  
화요일예배 [대학·가안·청년·비율·미리아]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토요일예배 [아동부]  
다나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Congratulation

## 다국어 만민뉴스 사랑해요! 감사해요!

전 세계인을 위한 만민뉴스가 어느덧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다국어 만민뉴스를 25개 언어로 번역, 발간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다국어 만민뉴스를 통해 은혜받은 국내외 교역자와 성도들이 보내온 감사편지를 일부 소개한다.

【 인도 】



###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고 훌륭한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스테판 목사  
(비루두나카르 지역 오순절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존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민뉴스 창간 25주년을 맞아 지면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전 세계인을 위한 만민뉴스는 모두에게 아주 훌륭한 신문입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영감 있는 메시지를 담은 이 신문을 매우 좋아합니다. 간증 또한 독자들에게 아주 유용하며, 하나님 권능을 파워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밀어판 만민뉴스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이를 통해 영육 간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언어로 발간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호주 】

###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치료 역사를 체험합니다”



홍하니 집사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시)

만민뉴스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아리랑' 한인식당에 영어, 중국어판 만민뉴스를 비치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귀한 하나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전하고자 시작했지요. 특히 손님 본인이나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에 더욱 만민뉴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또 주택가에 매달 800부 정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개월 이상 손목뼈 돌출로 고통을 받았는데 말끔히 치료됐지요. 이처럼 만민뉴스는 제 영혼을 잘 도게 할 뿐 아니라 응답과 치료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영혼이 알기를 원합니다.

【 일본 】



### “아름답게 디자인된 만민뉴스는 천국 소망을 더해 줍니다”



키타하라 타카코 집사  
(이다만민교회)

일어판 만민뉴스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교, 신앙가이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및 보도 사진 등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된 만민뉴스는 감동과 은혜가 넘칩니다.

특히 사모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눈에 본 듯이 표현한 기사는 제게 소망과 행복을 줍니다.

더불어 여러 사람의 간증은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도 그분들의 삶이 그대로 배어나와 힘을 받곤 하지요. 저는 만민뉴스를 많은 사람이 읽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 벨기에 】



###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 제자로 굳건히 서게 합니다”



파브리스 플랑드르 성도  
(에노만민교회)

불어판 만민뉴스는 저를 주님 제자로 굳건히 서게 했습니다. 여러 언어들로 번역돼 영적 소통을 해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과 전 세계에서 전하는 치료 간증을 통해 영육 간에 축복을 받고 있지요.

저는 벨기에 샤를로와 시에서 매주 노방전도를 하며, 각 가정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민뉴스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민뉴스를 통한 사역은 너무도 중요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선교소식, 기획 기사, 간증 모두 감동이 넘쳐요”

\*\*\*

“이재록 목사님 저서와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통해 은혜받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탈진할 때, 만민뉴스를 통해 지쳐있는 제 영혼과 사역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 서울시 마포구 L

\*\*\*

“이재록 목사님의 세계 선교 사역을 대하며 놀라움과 함께 도전이 됐습니다. 주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나게 돼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의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 부산광역시 P

\*\*\*

“만민뉴스에는 좋은 말씀들이 게재돼 있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의 부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기획기사는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이훈이 급증하는 요즘, 이렇게 바른 말씀을 알려 주는 신문을 읽을 수 있다니 축복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J

\*\*\*

“만민중앙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이 참으로 놀라워 이 목사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마지막 때의 생명의 목자임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대구광역시 H

May

가정의 달 5월

“은 세상에 외치는 방송, GCN! 생명의 말씀과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GCN에서 만나보세요!”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10, 11, 12, 13, 14
- 선 16, 17
- 의와 인과 신 1, 2
- 공부 잘하는 비결 1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3, 4, 5, 6'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S/W 문의

**1577-2073**





정필경 집사 (3대대 31교구)

### “만민뉴스를 전하는 작은 행함에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를 신봉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리는가 하면 때때로 굿을 하며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뜻을 거스르고 교회에 다니는 딸(정승이 집사)을 핍박했지요. 하지만 딸의 전도로 저희 부부는 2007년 10월 7일, 만민중앙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니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척이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전에 우상을 섬긴 일, 교회에 나간다고 딸을 핍박한 일, 술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한 일 등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민망함과 죄송함을 씻고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자.'라는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 소식지 '만민뉴스'를 전하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한 달에 1,200부를 가가호호 전했습니다. 매일 전도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니 몸이 점점 강건해졌고, 만민뉴스 배포량도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매주 6천부 이상 전하지요. 그 열매로 2010년, 2011년 2년 연속 '만민뉴스 배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영육 간에 강한 축복을 받아 저는 30여 년간 당뇨와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왼팔 팔목을 심하게 다친 후에는 손에 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민뉴스를 배포하면서 당뇨병과 수술 후유증이 사라졌고, 손목에 힘이 주어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왼쪽 옆구리와 아랫배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CT촬영 결과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17일, 이 사실을 안 교구장 안성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오후에 교구장님이 다시 한 번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후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제 아내는 불안증이 심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할 정도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증세가 사라졌고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된 오줌소태를 치료받았지요.

이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은 지난날을 회개하고 만민뉴스를 전하는 작은 행함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기까지 만민뉴스를 전하며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 “미지근한 신앙을 돌이키니 질병이 치료됐어요”

지난 3월 22일경부터 왼쪽 손목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급기야 손목에 무언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질 정도로 상태는 악화돼 갔지요. 26, 27일 이틀간의 검사 결과, 손목 관절에 석회석이 4개나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석회성건염이었지요. 석회석이 힘줄을 건드려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증상이었습니다.

젊은 층에서 손목 관절에 석회석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치료 역사를 늘 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왜 이런 상황이 왔나 궁구하기 시작했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태신앙이면서도 주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회장님께서 꿈속에서 해 주신 사랑의 터치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지난 3월 15일, 손목 통증이 시작되기 전의 일입니다. 꿈에 당회장님께서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고 싶은데 아직 관광객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라고 제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 주셨지요.

저는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복님 원장님은 저를 위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통회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지요. 그 뒤 거짓말처럼 심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4월 20일 병원에서 한 x-ray 촬영 결과, 손목 관절의 석회석 4개가 거의 사라지고 흔적만 조금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며 정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냐고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자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해 주셨지요.



#### 황찬미 자매 (3대학선교회)



기도받기 전 2012. 3. 26. 석회화 소견 보임

기도받은 후 2012. 5. 9. 석회화 소견 사라짐

저는 온전히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회개하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침내 5월 9일, 조금 남은 흔적도 말끔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확산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0번지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2층) ☎033)637-0271, 010-7730-42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경남지성전 경기도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